

한국기업, 韓美 FTA 혜택 길어야 5년

삼성경제연 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가 독점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에 불과해 우리 기업이 수비보다 공격 위주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한미FTA와 기업의 기회활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 기업의 상대적 이점은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FTA는 빨리 실현될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과 일본 FTA는 5년후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

美, 日·中 등 경쟁국과 FTA 체결땐 이점 소멸

내수시장 인식 마케팅 통해 美시장 공략해야

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한미FTA를 선·후발자 사이의 샌드위치에 놓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수비보다는 공격 위주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격 위주의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시장을 우리나라, 중국에 이어 제3의 내수시장으로 인식하고 한미간 통상거래에 있어 게임의 룰이 되는 영미법 회계·경영체제와 관행을 숙지해 글로벌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인수합

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시장에 진입, 신속하고도 과감한 선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우리 기업들은 아울러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미국시장 내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와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산업용 섬유, 바이오 신약 등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미국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비준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

로 분석했을 때 한미FTA의 연내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55~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도 일부 품목의 개방수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제계의 전반적 지지와 비준거부시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으로 연내 비준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한미FTA로 인한 업종별 파급효과와 관련, 자동차와 섬유류 등은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한미간 기술보완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품은 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기업의 부품과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방송 통신의 경우 콘텐츠 수출과 기술제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리산 청정공기 마셔 보세요” 25일 서울시 용산구 현대아파트 문화레포초백화점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지리산에서 공수해 온 청정 공기를 마시고 있다.

25일 서울시 용산구 현대아파트 문화레포초백화점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지리산에서 공수해 온 청정 공기를 마시고 있다.

1분기 실질 GDP성장률 ‘정체’

전분기와 같은 0.9%... 총소득 증가율 0.7% 하락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9%로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민간소비가 설비투자 부문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률의 추가 둔화는 막았지만 경기가 바닥을 찼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지표가 혼란스러운 형국이다. 특히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부역손실이 계속 커지면서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7% 하락해 제값경기는 여전히 냉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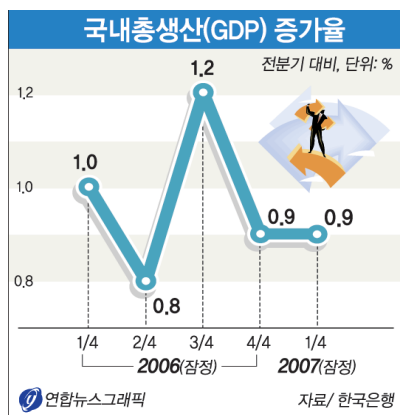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0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9%, 작년 동기 대비 4.0%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의 0.9%와 같은 수준이다.

직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0%, 2분기 0.8%, 3분기 1.2%로 진행돼왔다. 전반적으로 둔화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바닥을 다지는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내수부문의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경기의 추가 둔화를 막았다. 1분기 민간소비는 1.3% 증가해 지난해 2분기 이후로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도 4.0% 늘어나 2005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화수출은 2.8%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측면에서 제조업은 다소 부진했다.

이에 따라 내수의 GDP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의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높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의 0.6%포인트에서 마이너



스 0.7%포인트로 하락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부역 손실은 18조8천267억원으로 분기기준 사상최대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은 마이너스 0.7%로 돌아서 지난해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2010년 4대연금 재정부담 8조6,000억”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금액이 2010년 한 해에만 8조6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0년 정부 재정부담액인 3조4천730억원의 2.5배 수준으로 2010년 예상되는 정부 총 지출 287조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부담 내역을 보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보험료 및 퇴직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이 2006년 4조2천246억원에서 2007년 4조4천881원, 2008년 4조6천521억원, 2009년 5조1천

285억원, 2010년 5조1천586억원 등으로 4년간 22.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증가속도는 더 빨라 2006년 1조7천713억원에서 2007년 1조9천664억원, 2008년 2조2천496억원, 2009년 2조7천164억원, 2010년 3조1천833억원으로 4년간 79.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 지원은 2006년 1천332억원에서 2010년 1천687억원으로, 국민연금의 농어민보험료 지원금은 2006년 673억원에서 2010년 1천555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285억원, 2010년 5조1천586억원 등으로 4년간 22.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 증가속도는 더 빨라 2006년 1조7천713억원에서 2007년 1조9천664억원, 2008년 2조2천496억원, 2009년 2조7천164억원, 2010년 3조1천833억원으로 4년간 79.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털·인터넷 언론 등 35곳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27일부터 이용자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 포털, 인터넷언론 등 35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콘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천365곳도 확정해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 등에 통보했다.

한편 정통부는 5월부터 관련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주요 포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 목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등 123건 규제 없애달라”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대한상의가 밝혔다.

경제5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주택·건설 부문 규제 가운데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주택품질 저하와 공급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역시 “기업의 영업활동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급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건설경기 위축과 공급부족으로 인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농지규제와 관련해 “농업개방, 농업인 고용률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 중 개발 가능한 농지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비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000억대 주식부자 109명 보유주식 가치 1조 이상도 8명

주식시장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1천억원대 주식 거부(巨富)가 사상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25일 재벌닷컴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천707개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5천700여명의 보유 주식가치를 24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천억원대 주식부자가 109명에 달했다.

보유주식의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억만장자’도 8명에 달했으며, 보유주식의 가치가 200억원대 이상인 500대 주식부자의 보유지분 가치는 55조7천722억원으로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7%에 달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보유주식 가치가 2조424억원으로 1위 자리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왕좌’를 위협받고 있다. 동생인 정몽준 국회의원이 현대중공업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2조114억원으로 늘어 310억원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조7천840억원으로 3

위로 올라섰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1조6천912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한때 1위까지 올랐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보유지분의 가치가 1조6천856억원으로 줄어, 5위로 추락했다. 이밖에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1조6천319억원)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1조1천401억원)도 보유지분의 가치가 1조원을 상회했다.

1천억원대 주식부자 가운데 여성은 최대 여성부호인 이명희 회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었다. 이명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이 6천184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2천903억원)와 구분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2천687억원), 이화경 미디어플렉스 사장(2천320억원),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1천677억원), 김민희 웅문학원 학원장(1천282억원) 등이 1천억원대 주식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위성 3호 국내기술로 만든다

오는 2010년 발사되는 과학기술 위성 3호가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등 국내 연구기관의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다.

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과학기술위성 3호의 위성본체 개발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책임자 김형명)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탑재체인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 개발 기관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책임자 한원용)이, 부 탑재체인 ‘소형 영상분광기’ 개발기관은 공주대(이준호)가 각각 선정됐다.

또 열·주조계, 전기·전자·통신계, 자세제어 등 부분체 개발도 한국과학기술원이 맡았다.

과기부는 아울러 리튬이온 배터리(과기원 방호충), 다기능 복합체 구조체(과기원 인공위성센터), 고상능 탑재컴퓨터(충남대 김형명), 소형 태양전력조절기(우석대 정규범), 전력추력기(과기원 최원호) 등 우주핵심 기반기술 개발기관도 확정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과기부의 주관 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종팔 주관기관으로, 이번에 선정된 각 부분 개발기관들과 공동설계팀을 구성, 올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기존 과학기술위성 1호 및 2호 개발을 통해 소형위성의 기술 자립화를 상당부분 이뤘다”면서 “과학기술위성 3호는 2호 보다 진전된 핵심 우주기반 기술을 실험 개발, 이를 우주에서 검증함으로써 다목적 실용위성 등 실질적인 위성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수디자인 상품 공모 하세요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우수 디자인상품(GD)을 공모한다. 선정대상품목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상품의 제조자 및 디자인개발자, 판매자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04년 37개를 비롯, 2005년 23개, 2006년 14개 품목이 선정됐다. 신청은 오는 5월3일까지 GD홈페이지(www.gd.or.kr)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62-611-5400. GD로 선정되면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를 비롯,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신청 등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GOOD DESIGN